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감상 영역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지 혜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감상 영역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study of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Focusing on the domain of Music appreciation-

2011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지 혜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감상 영역 중심으로-

지도교수 서영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지 혜

유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2010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II. 이론적 배경

1. 2007 개정음악과 교육과정 고찰 ..... 5
2. 음악 감상의 정의와 유형 ..... 21

### III.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1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1. 현행 16종 중1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현황 ..... 34
2. 나라별 감상영역 분석 ..... 36
3. 작곡가별 감상영역 분석 ..... 42
4. 장르별 감상영역 분석 ..... 47

### IV. 결론 ..... 55

###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1> 16종 교과서 분류 기호표 .....	3
<표2>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	11
<표3> 내용 속의 학년별로 활동영역 분석 .....	17
<표4> 음악 감상의 인적 요소 .....	21
<표5> 음악 감상의 기계적 요소 .....	22
<표6> 16 종 교과서 악곡수 분석 .....	35
<표7> 서양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	36
<표8> 한국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	39
<표9> 한국 이외 아시아 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	41
<표10> 서양음악 작곡가별 감상곡 수록 현황 .....	42
<표11> 한국음악 작곡가, 채보자 별 감상곡 분류 .....	45
<표12> 한국 이외 아시아 음악 감상곡 나라별로 분류 .....	46
<표13> 서양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	49
<표14> 한국 전통음악 중 정악과 민속악 분류 .....	50
<표15> 한국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	53
<표16> 한국 이외 아시아 음악 감상곡 악곡의 장르별 분석 .....	54

# ABSTRACT

## An analysis and study of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 Focusing on the domain of Music appreciation -

Ji Hye Ryu

Advisor: Prof. Young Hwa Seo.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ppreciation of music of the 7th revision of 16 different kinds of music text books of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is to find out whether the appreciation of music is balanced equally on 16 different kinds of music text books.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appreciation, the necessity of appreciation, the purpose, nurturing of the ability of appreciation, different ways of appreciation, and the manner of a performer are included in this research. The range of this research is the analysis of the 7th revision of 16 different kinds of music text books. The appreciation is what is indicated as 'appreciation' on a table of contents of the music text book. There are four different ways in



this research.

Firstly, it is to examine thoroughly the 7th revised education of music.

Secondly, it is to inquire into the center of the 7th revised education of music and to find out the 'appreciation' in the content and the ability of appreciation of music in the objective of a lesson.

Thirdly, it is to look into the definition and different ways of appreciation of music.

Fourthly, it is to examine the appreciation of the 7th revised 16 different kinds of music text books of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Fifthly, it is to look into the analysis of different kinds of music text books, different composers of Western music, Korean classical music, and World music based on 16 different kinds of appreciation according to the 7th revision of music textbook of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 following is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 of all, it contains several of both Western music and Korean classical music. In addition, Western music contains 118, and Korean classical music contains 111. Since the quality of Korean classical music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7th revised education course improved, the ratio of Korean classical music and Western music is similar to each other. The World music is also included in the 7th revised music text book.

Second of all, it contains analysis of composers from Classic music to contemporary music of Western are Covered. Korean classical music has both a composer and a person who transcribed; the World music is analyzed by different country, genre, and era.

Third of all, it seemed that numerous appreciations are included in the 7th revised music text book, but there was a repetition of the same appreciation on different textbooks. However, an appreciation of music is the most important. As a result, the range of the appreciation of music should be enlarged.

Fourth of all, we as cultural citizens have to know the ways and the necessity of an appreciation of music, and we have to learn and practice the courtesy in a concer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시대에 우리는 음악과 함께 생활 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벨소리까지, 우리는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음악 감상의 종류는 무의식적으로 듣는 타의적인 음악이 있고, 음악을 분석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기울여서 듣는 자의적 음악,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음악 전문 방송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삶의 보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문화라면 음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sup>1)</sup> 음악이 단순하게 귀로 들려오는 소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음악 영역에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다른 영역도 중요하겠지만. 음악 활동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음악을 듣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려고 할때, 악보를 보기 전에 음악을 먼저 감상하고,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리듬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 감상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중학교의 총괄 목표는 크게 6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음악의 감상 능력을 음악 구성 요소에 대한 청각적 지각 능력과 음악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제시 되어있다. 중학교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가 일

---

1) 조성진, 『서양 고전음악 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2)

어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음악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는 음악 감상곡 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렇듯, 감상은 모든 것에 기본이 된다. 중학생들에게 음악 교과서 안에서 감상의 필요성과 음악에 따라 올바른 감상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 수업은 중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요즘 우리는 국, 영, 수와 같은 주요 과목에만 치중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얽매 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 보다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 결과, 음악 감상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16종의 감상 영역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과서 별로 감상곡이 다양하게 교과서 별로 수록 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교과서에만 치우 쳐 있지 않은지, 몇 개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고,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의 감상 수록 곡 현황과, 작곡자 별, 채보자<sup>2)</sup> 별, 나라 별, 음악장르 별로 감상곡 을 분석해보았다.

---

2) 채보(採譜)자 : 악보가 없었을 당시 음악을 듣고 기록한 사람을 말함.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6종의 감상 영역을 분석한다. 감상영역이란, 교과서 목차에 ‘감상’ 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범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 있는 2007 개정 1학년 16종 교과서와 그 분류 기호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1> 16종 교과서 분류 기호표

분류 기호	교과서명	출판사	저자명
A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교문사	전낙표·신혜영·이성은
B		교학사	이홍수·유명국·김일영
C		금성출판사	양종모·우광혁·신현남·윤성원·김한순·독고현
D		두산동아	최은식·석문주·권덕원·황병훈·이은하·강선영·오지영·송주현·홍수민·박종화
E		더텍스트	김미숙·임강은·이호경·김혜선
F		미래엔 컬처그룹	장기범·송무경·김원수·김유경·김태경
G		박영사	진태식·채은영·최은미
H		법문사	김정숙·이성율·종문·정원경
I		성안당	정옥희·이내선·이희종·박은정·설창환·이현창
J		세광음악 출판사	허화병·이희원·오병태·장주연
K		지학사	윤명원·정길선·황병숙·강세연
L		천재교육(민)	민은기·신혜승·김세중
M		천재교육(백)	백병동·최현·문경해·홍기순·김은하
N		태림 출판사	조효임·강민선·양은주·한태동
O		태성	주대창·정은경·노혜정·김동수
P		현대음악	윤경미·장보윤·곽은순·곽성원
		16종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교육 과정의 변천을 교수요목(要目)<sup>3)</sup>기부터 7차 교육과정을 성격·목표, 내용, 방법, 평가, 교육이념을 살펴본다.

둘째, 개정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의 개정의 중점을 살펴보고, ‘목표’ 속에서의 ‘음악의 감상 능력’, ‘내용’ 속에서의 ‘감상하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음악 감상의 정의와 감상의 유형, 지각 능력 배양, 음악 감상의 장애와, 음악 감상법을 고찰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살펴본다.

넷째, 개정7차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6종의 감상 영역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섯째, 개정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16종 감상영역을 교과서별로 서양 음악, 한국 음악, 세계 음악으로 분류하고,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 세계 음악의 감상곡 수록 현황을 살펴보고, 작곡자와 채보자, 한국 이외 아시아 음악은 나라별로 감상곡을 살펴본다. 장르별 감상곡 분석은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세계음악을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3) 요목(要目) : 중요한 조목(條目), 중요 항목으로 ‘순화’

## Ⅱ. 이론적 배경

###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고찰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전통적 음악 교육은 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다. 고대 이전부터 이미 춤과 음악을 즐기고 발전시켜 왔던 우리의 선조들은 삼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하였으며,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음악을 전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된 것은 갑오개혁(1894년) 이후이다. 이전의 전통적 음악 교육은 전문 음악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1885년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가 찬송가 형태의 서양 음악을 보급하면서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교육이 시작되었다. 특히, 1886년부터 1909년 사이에 설립된 전국 60여 개의 선교계 학교에서 찬송가와 창가를 가르치면서 서양 음악에 기반을 둔 학교 음악 교육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서양의 민요나 일본식 노래가 주를 이루는 창가와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학교 음악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1945년 광복 이후의 음악 교육으로 연결되었다.<sup>4)</sup>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악과 교육 과정도 변하였다. 음악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음악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그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등이 음악과 교육 과정에 제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요목(要目)기를 거쳐 1차부터 개정7차까지 교육 과정을 개정하여왔다. 각 시기의 음악과 교육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4)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2007-79호

## 가. 교수요목기 (1945년~1954년)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교수 요목기로 음악과 교육 과정이 제정되기 전,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음악 교육 내용을 간단한 요목(要目)의 형태로 제시했던 시기를 말한다. 교수요목에 따라 개발된 ‘중등 노래 교본’(1946) ‘중등 악전 교과서’(1974) ‘중등 음악’(1974) 등의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노래 부르기와 음악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진보주의 영향으로 ‘새 교육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제 1차 교육 과정 전체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시하는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교과 중심의 전통적인 내용이 중시 되었다.

## 나. 제1차 교육과정시기 (1954년~1963년)

제1차 교육 과정의 구성은 음악의 일반 목표, 중학교 음악의 목표, 각 학년의 지도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체험을 통한 인격의 형성과 국민적 교양, 애국·애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일반 목표에 따라 중학교 음악의 목표를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학년의 지도 목표에서는 각 학년 별로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이론, 창작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지도 방법과 범위, 수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다. 제 2차 교육과정 시기(1963년~1973년)

제2차 교육 과정의 구성은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과의 목표는 1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일부 계승하여 국민적

---

5)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경기도, 교육과학사 : 2005)



교양, 애국·애족의 정신, 우리나라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과 함께, 표현 및 감상 능력, 일상생활에 활용 능력을 강조하였다.

‘학년 목표’에서는 학년 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어 각 영역 별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였다.

‘지도 내용’에서도 학년 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제2차 교육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학년 별 ·영역 별 지도에서의 유의점을 13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영역 별로 학년에 따른 지도방법, 수준과 범위, 악기 선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라.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년~1981년)

제3차 교육 과정은 목표(일반목표, 학년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목표’는 일반 목표와 학년 목표를 목표의 하위 체계에 두어, 일반 목표에서는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 함양, 음악기초 능력 개발, 표현 및 감상 능력의 함양,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 목표에서는 학년별로 독보 및 청음, 기보의 기초기능,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 대한 목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독보 및 청음, 기보의 기초 기능에 대한 목표가 독립적으로 제시되면서 제3차 교육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내용’에서는 학년 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학년 별, 영역 별 유의점을 13개 항목으로 제시 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이 제2차 교육 과정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으며, 특수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향, 음악 활동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 마.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1년~1987년)

제4차 교육 과정은 교과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교과목표’에서는 일반적인 목표 진술 아래 세 가지 세부적인 하위 목표를 제시하여 이전보다 목표의 제시가 간결해졌다. 일반 목표에서는 음악성 계발,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함양,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강조하였고, 세부 목표에서는 독보와 기보 능력, 합창, 합주와 창작 능력, 악곡과 연주의 특징 이해와 감상 능력에 대해 제시하였다.

‘학년별 목표’에서는 악곡의 구성 요소 파악, 표현 능력, 감상 능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내용 또한 기본능력, 표현 능력, 감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 능력을 악곡의 구성 요소 파악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의 일곱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현 능력을 가창, 기악, 창작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서는 지도와 평가 두 항목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 바.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7년~1992년)

제5차 교육 과정은 제4차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주화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기초 교육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 교육 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5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음악 교육 학계에서는 포괄적 음악 교육론, 개념적 접근법, 심미적 교육론 등의 교육 이론이 과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이 각 급 학교의 음악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제5차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

‘교과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 진술 아래 독보와 기보의 기본 기능을 삭제한 두 가지 세부적인 하위 목표를 제시하여 제4차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보다 더 간결해졌다.

‘학년 목표와 내용’에서는 학년 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년 별로 표현과 감상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학년 별 목표에서는 악곡의 구성에 대한 감각과 개성적 표현 능력,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기는 감상 태도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내용 또한 표현 능력, 감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서는 지도와 평가 두 항목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 사.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년~1997년)

제6차 교육 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내용 체계, 학년별 내용), 방법, 평가로 구성되었는데, 성격과 내용 체계는 신설된 것이다. 방법, 평가는 지도와 평가 상의 유의점의 분리, 독립된 것이다.

‘성격’에서는 음악, 음악 교육, 학교의 음악 교육의 세 가지 관점에서 규명되었다.

‘목표’에서는 음악 외적인 목표는 제외하고 음악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목표가 진술되었으며, 구성 요소의 이해,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음악에 대한 흥미와 즐겨 참여하는 태도 등 세 개 항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에서는 이해,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해는 음악의 구성 요소를 표현은 가창, 기악, 창작을 포함하는 것이다.

‘방법’에서는 교수·학습 지도 계획, 영역별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가’에서는 평가의 방향, 영역별 평가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 아. 제7차 교육과정 시기(1997년~2007년)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별 수준에 따른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학교 급별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는 기존의 여러 교육 이론이 지속적으로 반영하였고, 더 나아가 코다이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 달크로즈 교수법 등의 유럽 교수이론과, 음악적 행위를 강조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론’도 반영하였다. 또, 국악 교육의 내용도 더욱 증가하였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내용 체계, 학년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이루어졌는데, ‘성격’은 음악과 교육, 음악과의 성격, 학교 급별에 따른 성격의 세 가지 관점에서 규명되었다.

‘목표’에서는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위에 세부 목표를 세 가지 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일반 목표에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함양, 음악적 정서 함양에 대해 제시하였고, 세부 목표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 이해,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내용’에서는 이해, 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해는 음악의 구성 요소를, 활동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에서는 교수·학습 지도 계획, 영역별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가’에서는 평가의 방향, 영역 별 평가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sup>6)</sup>

---

6) 교육과학 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다음의 <표2>는 음악과 교육 과정의 변천 내용을 각 시기의 체제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sup>7)</sup>

<표 2>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성격·목표	내용(영역)	방법	평가	교육이념
제 1 차	1. 음악과의 일반목표 2. 국민학교 음악과의 목표 3. 각 학년의 지도 목표 (기능연마, 감상, 창작, 음악의 생활화)	—	—	—	· 교과중심 교육과정
제 2 차	1. 목표 2. 학년 목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3. 지도 내용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 지도상의 유의점 (13개 항)	—	· 경험(생활) 중심 교육과정
제 3 차	1. 목표 가. 일반 목표 나. 학년 목표	2. 내용 (가창, 기악, 창작, 감상)		—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제 4 차	1. 교과 목표 2. 학년 목표 및 내용 <학년> 가. 목표	나. 내용 (기본능력, 표현능력, 감상능력)	3.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가. 지도 (5개 항) 나. 평가 (2개 항)		·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제 5 차	1. 교과 목표 2. 학년 목표와 내용 <학년> 가. 목표	나. 내용 (표현, 감상)	3.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가. 지도 (5개 항) 나. 평가 (3개 항)		· 교육 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 (건강성, 자주성, 창조성, 도덕성)
제 6 차	1. 성격 2. 목표	3. 내용 (이해, 표현, 감상)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4. 방법 (11개 항)	5. 평가 (7개 항)	
제 7 차	1. 성격 2. 목표	3. 내용 (이해, 활동) 가. 내용 체계 나. 학교급별 음악과 내용체계 다. 학년별 내용	4. 방법 (9개 항)	5. 평가 (7개 항)	· 교육 목적으로서의 ‘인간상’ 제시 (개성 추구, 창의성, 진로 개척, 가치초, 공동체 발견)

7) 교육과학 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

## 2. 개정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가. 음악의 역할 및 음악 교육의 효과 강조

음악 활동은 지식, 느낌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전인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 활동의 특성은 모든 시대와 문화권의 사회에서 음악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했으며,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토대가 되었다.

음악은 인간에게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의 증진에도 기여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전승하여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은 곧 음악 교육의 본질이 자 내용이 된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음악, 음악 교과의 이러한 역할과 효과를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의도가 음악과의 내용과 방법 및 평가 영역에 모두 반영되도록 하였다.

### 나.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내용의 적정화는 내용의 양과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자, 사회, 학문 및 내용 타당성의 문제인 목표와의 관련성, 조직의 적합성인 연계성 등에 비추어 지도할 만한 내용, 지도해야 하는 내용을 추출하고 조정, 조직하는 것이다. 내용 양의 적정성 조정은 수업 시수와 중복되는 내용이나 유사 개념을 고려해 내용을 선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활동 영역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구분을 없애고 활동 영역에 속하는 내용으로만 제시하였다.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기,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와 같이 동일한 방법의 내용이 활동마다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내용의 양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가창, 기악 등의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공통 내용으로 제시하고,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각 활동에 고유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양의 적정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이해 영역의 경우, 제7차 교육 과정에서 필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매 학년 수준만 달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것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로 필요한 내용만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내용상의 양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

내용 수준의 적정성 조정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한 음악적 개념을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년별 위계를 두어 지도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한 개념이나 활동 내용만을 선정하여 위계화함으로써 학년 별로 지도해야 할 내용도 분명해지고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이루게 되었다.

## 다.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는 일찍부터 요구되었지만 그것을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교육 과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문서의 보완보다는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에서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학교나 교사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온 국악 내용의 구체화 작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개정의 방향에 맞게 국악 교육 내용을 선별, 체계화하면서도 교사들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세화 하였다. 활동 영역의 시조의 초장,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가곡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국악 학습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 라. 음악 교육의 활용 도 제고

음악의 생활화는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과 학생들이 향유하는 음악이 분리되어 왔고,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교육 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전에는 생활에서의 음악이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정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화를 대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생활화 영역에 대한 학습은 평가를 통해서보다는 학생의 자발성과 음악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 것부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내외에서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등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마.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수용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이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세계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은 이제 음악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음악들은 우리나라와 서양의 전통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권과 시대,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음악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학교 여건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들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 바. 음악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개선

선택 과목 교육 과정은 학생의 소양 증진과 함께 진로·적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 과목 교육 과정의 개정은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진로·적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경험과 수준, 진로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교육 과정 개정은 선택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sup>8)</sup>

## 3. 음악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고찰

### 가. ‘목표’ 속에서의 ‘음악의 감상 능력’

2007년 음악과 교육 과정의 ‘목표’는 총괄 목표와 그에 따르는 학교급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목표는 10여 년간의 음악과 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전에 목표를 담고 있고, 학교급별 목표는 각 학교급별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을 총괄 목표의 내용이다.

---

8)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총괄 목표는 크게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요소 중에서 음악의 감상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의 감상 능력은 가락, 리듬, 화음, 음색, 셈여림, 짜임새 등의 음악 구성 요소에 대한 청각적 기각 능력과 음악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음악의 예술적 감상을 위해서는 지성, 감정, 감각의 모든 요소가 사용되어야 한다. 음악의 감상을 위해 구성 요소에 대한 지각 능력, 배경적 지식 및 정서적 반응 등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의 체계적 감상 교육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준다. 교육 과정의 총괄 목표는 학교 급에 관계없이 학교 음악 교육에서는 ‘음악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한 반응(전체)’ -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감지 및 배경 지식의 습득(부분)’ - ‘음악에 대한 총체적 반응 증진’의 순환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 감상 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내용’ 속에서의 ‘감상하기’

학년 별 내용에서 교육 과정의 활동 영역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네 가지로 이해되어야 하며,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표현하기’를 독립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않도록 유의 하여 한다. 이 중에서 감상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하기 는 음악 교육의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활동 영역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음악의 표현 요소 및 음 현상에 대한 감지력 그리고 음향에 대한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에서 악곡 전체를 통찰하여 듣는 활동과 함께 간단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를 파악하는 감상하기가 이루어졌다면, 중학교에서는 비교, 분석적 감상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감상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중학교에서 감상 활동을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형식적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로 구성되어있다.

<표 3> 내용 속의 ‘학년별로 활동영역 분석’

학년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활동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악곡에서 형식적인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다른 예술과 관련성 탐색하기

### (1)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어떤 악곡이든 반복을 통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변화를 통하여 다양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음악에 있어서 반복과 변화의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은 악곡의 감상에 매우 중요하다. 7학년 에서는 리듬과 가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들이 반복, 변화되는 부분을 구별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악곡의 형식적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형식이란 악곡의 구조를 결정하는 원칙과 질서를 의미한다. 음악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들(동기, 작은악절, 큰악절, 한 도막 형식, 두 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8학년에서는 악곡의 형식 요소들을 구별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음악은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파악하고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음악은 놀이, 노동, 산업, 의식, 정치 등 여러 사회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 음악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악곡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4)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7학년의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 감상하기’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음악 사조와 특징의 변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국악의 경우, 상고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갑오개혁 이후(근대), 현대 등의 시대적 음악을, 서양 음악의 경우,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등의 시대의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5)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8학년의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는 특정한 지역의 음악을 다른 지역의 음악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기는 문화적 공통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는 개별 지역의 음악적 특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다양한 지역의 특징적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6)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9학년의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 감상하기’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선택하여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바른 감상 태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음악을 대하는 것이다. 이는 내적으로는 음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바른 자세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애호심,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과 소리의 흐름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생애에 걸쳐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생활화하는 데 기초가 된다.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감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을 집중하여 들은 후 음악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음악을 즐겁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8)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다른 예술과 관련성 탐색하기’는 음악과 타 예술과의 관련성을 찾아 음악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을 통해 예술 분야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학교급별·내용 영역별 지도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의 세부사항인 ‘활동’ 영역 ⑤항에서는 감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⑤ 음악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의 미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다양한 악곡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애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상 하도록 한다.

⑤항에서는 미적 가치를 경험하며 감상하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감상 학습 활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학생들이 음악의 미적 가치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음악을 통하여 경험되는 미적 가치는 음악의 구성 요소들을 통하여 조직된다. 가락, 리듬, 강세, 짜임새, 음색 등 음악의 구성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은 음악의 미적 가치를 경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음악의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감지만으로는 하나의 음악이 내포하는 총체적 의미(미적 의미)를 경험할 수 없으므로, 개별 구성 요소의 유기적 통합에서 오는 음악의 전반적 효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적 가치를 경험하며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개별적, 총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애호심은 음악이 나타내고 있는 미적 내용과의 직접적인 경험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에 대한 가치관과 애호심을 언어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음악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sup>9)</sup>

9) 교육과학 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

## 2. 음악 감상의 정의와 유형

### 1. 음악 감상의 정의

음악 감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배양된 능력”이란 말도 적당한 표현이 아니겠고, 그저 능력을 통해서 즐기치게 의문을 갖고 매달릴 때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을 즐긴다는 것과 감상 한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만 이런 갈림은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이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음악을 즐기려면 그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되면 음악의 즐거움을 커진다고 생각이 든다.

#### 가. 음악의 구성

음악을 구성하는 인적 및 기계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인적 구성

음악 감상에는 3가지 인적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작곡가, 연주가, 감상자로 되어 있다.

<표 4> 음악 감상의 인적 요소

작곡가	마치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같다. 그들은 음악의 기본적인 소재와 재료를 사용, 창조적 행위를 한다.
연주가	마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인과 같다. 작곡가가 스케치한 음악적 구상은 창작의 기록에 불과하며, 악보에 수준 높은 그 음악적 기호가 연주가의 재현을 통해서 실제적인 음으로 표현될 때 그 음악은 생명을 갖게 된다.
감상자	소비자이다. 청중이 없다면 작곡가나 연주가 존재 할 수 없다.

## (2) 기계적 요소

음악의 생산에는 인적 요소 외에도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사람은 부차적인 역할에 그친다.

<표 5> 음악 감상의 기계적 요소

매체	거의 모든 음악은 기계 혹은 물리적 매체를 통해 연주된다. 악기 혹은 인성이라는 연주 수단에 의해서 음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출판	작곡가의 작품은 우선 악보의 출판을 통해서만 발표가 가능하므로 감상자들도 이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달	라디오나 TV를 통한 음악예술의 전달은 작품이 연주되는 순간 수많은 청중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음악 애호가들은 레코드나 테이프 등 재생장치를 통해서 듣고 싶은 레퍼토리를 마음껏 듣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음악예술은 한마디로 말해, 건전한 청중이 있을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sup>10)</sup>

## 나. 음악 감상의 유형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을 감상하는 형태는 듣는 태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수동적 감상, (2)감각적 감상, (3)정서적 감상, (4)지각적 감상이 그것이다.

### (1) 수동적 감상

음악은 그저 들려오는 음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바흐의 식탁음악이나 「커피 칸타타」 같은 것은 연주를 위해 마련된 음악이 아니라 당시 귀족들의 식사와 대화를 돕는 이중의 “배경음악”이다. 영화의 배

10) H. M. Miller, 『음악 감상을 위하여』 (대림출판사, 서울 : 1994)



경음악 또한 스크린에 나타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 감상자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마련이다. 그저 들려오는 음악을 듣기는 한다는 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음악 감상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음악이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수반하지 않고 오로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주될 때 감상자는 그 음악을 즐기기 위해 수동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것이다.

## (2) 감각적 감상

음악을 감각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의력을 요구한다, 음률의 미묘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목관의 플룻 소리나 먼 데서부터 울려오는 종소리, 성당의 오르간이나 합창의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음률, 또한 교향악단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양감 있는 사운드, 이런 모든 음률은 감상자들이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즐기는 게 가능하다. 그러한 사운드가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즐거움은 듣는 이에게는 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음악 감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3) 정서적 감상

이런 경우 감상자는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나 분위기와 함께 음악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커다란 비중을 두게 마련인데, 이것도 듣는 사람에 따라 승고한 체험을 맛본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정서적 감상은 부담 없이 듣는다는 점에서 인구가 많다.

## (4) 지각적 감상

이것은 먼저 열거한 수동적·감각적·정서적 감상과는 달리 주의력을 집중시켜

야 하고, 또 어떠한 구조로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형태야말로 음악 감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다.

### (5) 종합적인 감상 방법

감상자는 대작을 감상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감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 또는 지각적 방법으로 듣는 태도가 변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감상 방법 중에서 가장 주의력을 요하는 것이 지각적 감상 방법이다. 음악 감상의 능력 배양이란 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 다. 감상의 지각 능력 배양

음악 감상에 있어서 지각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것이 요구 된다.

### (1) 주의력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먼저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 주의력을 몸소 익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처음 음악을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리저리 다른 생각으로 공상을 하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지각적인 감상에 장애가 되므로 속히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 (2) 반복

음악을 들을 때 대개의 경우 단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청각적인 인상은 시각적 인상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기억력의 증진을 돕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을 되풀이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레코드나 테이프의 녹음 음악은 안

성맞춤이다. 작품을 되풀이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 작품의 깊이도 알게 된다.

### (3) 친밀감

한 작품을 여러 번 계속 들으면 친밀감이 생긴다. 우리들이 옛 친구나 낯익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듯이 음악에 있어서도 귀에 익은 음악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렇게 해서 듣게 되는 음악일수록 더 흡족한 것은 사실이며, 그렇게 해서 듣게 되는 음악일수록 더 흡족한 즐거움을 건게 된다. 그러나 감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단지 친밀한 작품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그 이유, 그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고 음악적 시야를 넓힌다는 쾌감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 (4) 지식의 배경

음악에 관한 지식의 배경은 두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1)일반적 배경, (2)특정한 배경이 그것이다.

#### (가) 일반적 배경

일반적 배경은 듣는 이의 음악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이 연주회에 간다든지 방송이나 라디오를 듣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관현악단 또는 취주악단에서 연주하는 것 등 모두가 그런 것이다. 또 음악의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음악가들이 전기 음악사, 그리고 악리 등의 저서를 읽는다는 것도 포함된다.

## (나) 특수 배경

특수 배경은 감상력을 배양하기 위해 작품마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작품에 관한 지식을 그 작품의 특수 배경이라 하는데, 그러한 배경 재식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된다. 작품의 형태, 양식, 특성 내지는 작가와 작품에 관한 지식(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작곡되었는지)을 특수 배경의 지식이라 하겠다. 이런 지식은 감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고, 참고 서적을 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 (5) 참여

연주활동을 하면 감상에 도움이 될 법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아마추어들은 악보를 읽은 능력이 서투르므로 그 쪽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감상에는 등한시하게 된다. 또 실제로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도 아마추어 쪽이 감상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이따금 본다.

## (6) 청각과 시각적 접근법

음악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외에도 (1)청각적 접근과 (2)시각적 접근이 있다.

### (가) 청각적 접근

음악을 단지 귀로 들음으로써만 이해하려는 방법을 말하는데, 음예술은 원래 청각예술, 즉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므로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나) 시각적 접근

작품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 score를 보면서 감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감상 방법은 음악 감상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켜 주기 때문에 크게 권장할 만한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연주가들이 실연을 직접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연주자의 연주 과정이나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본다고 해서 음악의 진수를 맛본다고는 하기 어렵다. 일반 청중들은 지휘자에 의해 움직여지는 관현악단의 연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음악의 참다운 내용에 관한 실마리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각적인 감상은 자칫 청각적인 감상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 라. 음악 감상의 장애

음악의 기초적인 상식은 감상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익혀 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일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악 감상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음악의 여러 가지 초보적인 이론과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어려운 점들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1) 청각적 장애

청각은 시각만큼 예민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소리를 알아차려 그것을 귀를 통하여 수용할 때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또 수동적인 감상 태도는 기어코 초극해야 한다.

아무리 단순한 음악이라도 우리의 귀에 와 닿는 청각적인 자극은 크게 마련이다. 그런 후에 지각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에만 작품에 얽힌 신비스런 베일을 벗길 수 있으며,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2) 시각적인 요인

감상의 또 다른 장애 요인은 음악이 공간예술이 아닌 시간예술이란 점이다. 음악의 모든 요소는 그것이 흐르고 있을 때 재빨리 포착해야 하며, 그 전후를 파악해야만 초점을 알 수 있다. 또 연주가 끝나는 순간에 감상자는 그 작품 전체를 기억 속에서 유기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즉, 한 폭의 그림, 한 점의 조각, 혹은 건축물의 경우, 부분마다를 살필 수 있고 EH 전체를 한눈으로 통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음악 감상에 있어 암기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 (3) 편애와 편견

편애와 편견은 참다운 음악 감상에 큰 장애가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느 작곡가나 작품, 그리고 건반음악 등은 좋아하면서 성악곡이나 오페라, 그 밖의 현대 음악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감상의 폭을 좁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감상자는 아무 곡이나 편견 없이 들어야 발전할 것이다. 11)

---

11) H.M.Miller, 『음악 감상을 위하여』 (서울, 태림출판사 : 1994)

## 2. 음악 감상의 방법

### 가. 좋은 연주와 나쁜 연주의 구별

연주되는 음악은 문학 작품이나 그림처럼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보라는 것이 있어 작곡자의 작품으로 남아 있지만 음악이 작품의 개념을 갖게 된 것도 전체 역사로 본다면 최근에 속한다. 음악은 연주가 소리를 만들어 내보내는 순간 그 예술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작곡자 자신도 한 곡의 탄생을 연주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문학 작품이나 그림은 일단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면 작품은 변하지 않고 그것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심미안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음악 연주는 도대체 정해진 연주라는 것이 없다. 우선 악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서양 음악의 연주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다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연주가 악보를 어디까지 ‘정확히’ 연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연륜을 쌓은 연주가들도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때 확고한 음악적 신념을 가지고 연주를 했더라도 연주는 끊임없이 자신이 이전에 했던 연주와 다른 ‘해석’으로 연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연주가와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는 마땅히 좋은 연주를 만나야 하겠는데 어느 것이 좋은 연주일까? 좋은 연주란 늘 다니던 산길에서 작은 샘물을 발견하듯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며 그런 연주를 들을 때 우리는 나태한 자세로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연주를 판단하는가? 좋은 연주와 그렇지 못한 연주를 자신 있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실은 콘서트홀의 청중 속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연주가 끊임없이 자신의 연주를 닦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이 그런 연주를 만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좋은 연주에 대한 판단력이 생긴다.

그러나 초보자일지라도 몇 개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연주자라도 무성의한 연주를 했을 때는 좋은 연주라고 말할 수 없다. 상대방의 성의가 있고 없고는 초보자라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또 자신감 없는 태도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연주자에게서도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다. 상대방이 어떠한 기량을 내 귀에 퍼부어도 내 마음이 닫힌다면 감상이 되지 못한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반드시 나만의 노력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전혀 유명한 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 나. 연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악보를 읽어 구체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음악을 전달해 주는 연주자는 감상하는 사람에게 작곡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 악보를 읽지 못하는 일반인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연주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설령 악보를 읽고 음악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라도 그것은 음악 감상이 아니다. 음악 감상은 바로 연주를 듣는 행위이다. 연주자란 우리의 문화적 삶에서 누구인가? 연주자가 듣는 사람보다 음악을 더 잘 아는가? 우리는 연주자의 태도를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연주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문제는 당연히 음악을 감상하는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하루에도 여러 연주장에서 음악회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연주를 만나기 어렵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음악이 음악 자체로서 우리 귀를 통해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준비하게 나열된 학력과 경력을 통해 혹은 화환과 리셉션의 과시를 통해 일그러진 상태로 전달된다면 슬픈 일이다.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고궁을 찾는 심정으로 음악회에 가지만 이런 연주자를 도처에서 만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음악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적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음악 감상을 올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마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연주가이다. 흥미로운 것은 연주가들은 보통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음악을 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연주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연주의 기법이라는 점이다. 연주가들이 다른 연주를 들었을 때의 평을 들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객석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듣는 듯 한 기분을 갖게 된다. 연주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주를 객석에 내려와 듣는 듯 한 기분을 갖게 된다. 연주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주를 객석에 내려와 듣는 재능을 가진 사람-그런 사람이 바로 대가일지 모른다. 연주가의 맑은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먹서먹함을 느끼지 않고 그 연주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sup>12)</sup>

### 3. 연주회장에서의 매너

콘서트홀이나 오페라 하우스 혹은 그 밖의 연주회장에 오는 사람들은 동일한 날짜, 시간에 다수가 한 장르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가령 미술 전람회를 구경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면을 보여 주게 된다. 그래서 연주회장에서의 청중의 매너는 문화를 접하는 국민의 수준을 보여 척도가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청중들의 매너가 빠르게 세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세련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아직 연주회장에서의 매너가 미숙 한 것은 한 세기 전 음악이 수입된 후 뒤늦게 매너가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생활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연주회장에서 서먹서먹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주회장이 우리 생활에 아직까지도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연주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지금 우리는 매너를 아는 것도 음악 감상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청중이

---

12)조성진, 『서양 고전음악 감상법』 (서울 : 대원사, 1999)

없는 연주회는 그 개념조차 성립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회의 매너는 바로 지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매너를 올바르게 배우고 그것이 옳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서이지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무심코 행동하는 까닭으로 아직도 눈에 띄는, 짚어 보아야 할 매너의 사례를 아래에 열거해 본다.

## 가. 청중의 매너

연주회장에서는 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편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이 채우지 못한 자리가 있다고 옮겨 앉으면 안 된다.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 자리를 옮기는 행위는 음악회장의 분위기를 헤칠 수 있다.

### (1) 연주회장의 규칙

연주회상에는 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미리 정해 놓은 규칙이 있다.

- (가) 8세 미만 아동은 들어오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 (나) 흥기, 사진기 그리고 휴대 전화기 등을 연주회장에 가지고 가는 것을 삼간다.
- (다) 휘파람을 불어 대는 것은 야유와 같은 뜻을 지니므로 삼가야 한다.
- (라) 악장이 바뀔 때 박수를 치면 분위기를 깰 수 있으니 오페라가 끝났을 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낸다.

## 나. 연주가의 매너

매너라면 흔히 연주회장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

지만 연주가들도 매너를 지켜야 한다. 유명 연주가들 중에도 매너가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든 연주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아마 연주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매너일 것이다. 청중의 분위기는 어디나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데 자신의 예민한 반응을 지나치게 보이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다. 청중이 열광하는 것인지 체면상 박수치는 것인지 연주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긴 곡을 지나치게 많이 앙코르 곡으로 제공하는 것도 그리 잘하는 일은 아니다.

몇 가지의 매너를 배워 기억함으로써 나와 모두가 연주를 즐길 수가 있다. 연주 회장이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지키는 공공질서를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연주회장의 매너가 된다.<sup>13)</sup>

---

13) 조성진, 『서양 고전음악 감상법』 (서울 : 대원사, 1999)

### Ⅲ.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1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분석

#### 1. 현행 16종 중1 음악교과서의 감상영역 현황

2007년 개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16종이다. 서양 음악은 'C' 교과서에 가장 많이, I 교과서에는 가장 적게 수록 되어있다. I 교과서는 한국 음악이 가장 많이 수록 되어있고, C 교과서에는 가장 적게 수록되어있다. B, C, 교과서에는 서양음악이 한국 음악에 비해 비중이 훨씬 컸다. 개정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하도록 장려했지만, 교육과정상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래서 개정7차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수용하는 것을 중점 중 한가지로 두어서 그런지 세계음악(중학교 1학년에는 아시아음악)이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감상 영역 중에는 교문사가 5곡, 박영사와 법문사가 8곡, 성안당이 6곡, 지학사, 태성, 현대 음악에 2곡씩 수록되어있다.

<표 6> 16 종 교과서 악곡수 분석

출판사	서양음악곡수	한국음악곡수	세계음악
교문사(A)	8	7	5
교학사(B)	10	5	4
금성출판사(C)	18	3	·
두산동아(D)	9	10	·
더텍스트(E)	5	6	·
미래엔 컬처그룹(F)	9	5	·
박영사(G)	4	5	1
법문사(H)	8	6	8
성안당(I)	3	5	7
세광음악출판사(J)	10	8	·
지학사(K)	6	8	2
천재교육(민)(L)	8	5	·
천재교육(백)(M)	8	8	·
태림 출판사(N)	5	9	·
태성(O)	6	10	5
현대음악(P)	5	7	2
<b>총 곡수</b>	<b>118</b>	<b>111</b>	<b>34</b>

## 2. 나라별 감상영역 분석

### 1. 서양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2007 개정 음악교과서 16종의 감상곡 수록 현황을 서양 음악, 한국 음악,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로 분류 하였다.[표-7]에서 보여 지듯이 서양음악은 16종 교과서에 67곡이 수록되었으며, 가장 많이 수록된 감상곡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다. 이 곡은 10종 교과서 나왔으며, 그 다음은 슈베르트의 ‘마왕’ 과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이 교과서 7종에서 나왔으며,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가 5종에서 나왔다. 그리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제 1악장과,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봄’ 이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다른 곡들은 대부분 1~2종에 수록되었다.

<표 7> 서양 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곡명	출판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합
슈베르트 ‘마왕’		1	1	1			1		1			1					1	7
베르디 ‘히브리노예들의 합창’		1																1
아그네즈카 홀랜드 ‘카핑베토벤’		1																1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																1
웨버의 ‘캣츠’		1																1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입문’		1	1							1	1	1	1	1	1	1	1	10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1					1											2
비제의 ‘하바네라’		1																1
브람스 ‘축전서곡’			1															1
비발디 <사계> 중 ‘봄’			1	1			1		1		1				1		1	7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제1악장			1															1
엘가 ‘사랑의 인사’			1															1
바흐 ‘2성 인벤션 제 1번’			1															1
하이든 ‘현악4중주 종달새 1악장’			1															1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중에서 ‘꽃의 왈츠’			1															1
푸치니 <투란도트>중에서 ‘아무도 잠 못 이루고’			1			1												2
바흐 푸가의 기법 BWV1080‘제1곡’				1														1
베토벤 ‘전원 교향곡’(1~5악장)				1					1									2







1~2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표 8> 한국 음악 감상곡 수록 현황

곡명	출판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합
김영동 '물고기의 노래'		1																1
김창조 '가야금 산조'		1		1											1	1	1	5
양방언 '프론티어'		1					1				1				1			4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1	1					1	1		1	1	1		1		1	9
가곡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1		1	1													3
황의중 '만선'		1																1
천년만세		1																1
관소리 <심청가>중에서 '어허둥둥 내 딸'			1															1
이성천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1			1							1	1				4
거문고 산조(신쾌동류)			1															1
김영재 해금 협주곡 '방아타령'			1															1
현악 영산회상 '여민락'				1												1	1	3
단가 '진국명산'				1				1										2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1														1
'지나위'				1					1		1				1	1		5
'수제천'				1												1		2
춘향가 중 '사랑가'				1					1	1								3
창극 '심청전'				1	1								1					3
영산회상 중 '염불도드리, 타령'				1	1													2
김영동 '산행'				1														1
강상구 '어린왕자'				1														1
박범훈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1					1						1		3
홍보가 중 '심술타령'					1									1				2
'대취타와 취타'					1		1	1	1		1				1	1		7
'해금 산조'						1							1					2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1												1
이경섭 '방향 1악장'						1												1
박종선류 '아쟁산조'						1												1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1	1						1				3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1											1
이생강류 '대금 산조'							1											1
김영재류 '해금 산조'							1											1
'종묘 제례악'							1		1	1	1				1	1	1	7



34곡이 8종에만 수록되어있다. 몽골 민요 ‘몽골의 밤 노래’와 ‘가물란 합주’가 4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가물란 합주’란 서양음악과 구별되는 5음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매우 이국적으로 들리는 가물란 합주는 자바 섬과 발리 섬에서 특히 발달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타악기로 화음을 연주하는 음악으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무용극·인형극·그림자놀이·가면극 등에서 반주로 사용한다. 터키민요 ‘위스퀴다라’,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베트남 민요 ‘가을축제’, 인도민요 ‘달아 달아’가 3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으며, 나머지 곡들은 1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표 9>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 수록 현황

곡명	출판사	A	B	G	H	I	K	O	P	합계
터키 민요 ‘위스퀴다라’		1			1	1				3
중국 민요 ‘모리화’		1								1
몽골 민요 ‘몽고의 밤 노래’		1	1		1	1				4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1			1			1		3
베트남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1			1	1				3
베트남민요 ‘가을 축제’			1							1
일본 민요 ‘코키리 코절’			1							1
중국 민요 ‘물에 비친 하늘’			1							1
가물란 합주				1		1	1	1		4
이스라엘 민요 ‘샬롬(안녕)’					1					1
이란 민요 ‘소맥꽃’					1					1
인도 민요 ‘달아 달아’					1	1		1		3
인도네시아민요 ‘양거춤 추세’					1					1
싱가포르 민요 ‘찬말리 찬’						1				1
대만 민요 ‘아리산의 아가씨’						1				1
중국 민요 ‘초원정가’							1			1
이스라엘 민요 ‘돌아가리’								1		1
일본 민요 ‘벚꽃’								1		1
중국의 극음악 ‘경극’									1	1
일본의 극음악 ‘가부키’									1	1
<b>모두 20곡 수록</b>										<b>33</b>

### 3. 작곡가별 감상영역 분석

#### 1. 서양 음악 작곡가별 감상곡 수록 현황

서양 음악을 감상곡 작곡가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총 28명의 작곡가 수록되어있다. “모차르트”의 감상곡이 가장 많이 수록 되어 있으며, ‘작은 밤의 음악’, ‘교향곡 40번 제 1악장’, ‘초보자를 위한 작은 피아노 소나타 (1~3악장)’, ‘세레나데 K.525’, ‘피아노 소나타 K.545 1악장’, <요술피리> 중 ‘아름다운 방울소리’ <요술피리>중 ‘밤의 여왕 아리아’, ‘모차르트의 자장가’, ‘터키 행진곡’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게’ 9개의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다. “베토벤”은 ‘전원 교향곡 (1~5악장)’, ‘운명교향곡 제1악장’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9번 합창 4악장’ 이 수록 되어있고, 비발디, 바흐, 하이든, 과 함께 4곡이 수록되어있다. 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전시대의 곡들이 많이 수록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리튼의 1곡은 무려 10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슈베르트, 웨버 는 3곡이 수록되어 있고, ‘엘가, 브람스, 푸치니, 쇼팽, 헨델, 거슈윈’ 은 2곡이 수록되어있다. 아그네즈카 홀랜드, 비제, 바르토크,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파헬벨은 1곡씩 수록되어있다.

<표 10> 서양 음악 작곡가별 감상곡 수록 현황

작곡가	감상곡명	합계
슈베르트	‘마왕’(A, B, C, F, H, K 수록)	3
	‘트로이메라이’ (C 수록)	
	‘월계꽃’ (D 수록)	
아그네즈카 홀랜드	‘카핑베토벤’ (A 수록)	1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A수록)	2
	‘사랑의 인사’ (B 수록)	
웨버	‘캣츠’ (A 수록), ‘캣츠 중 메모리’ (D 수록)	3
	‘오페라의 유령’ (G 수록)	
비발디	<사계> 중 ‘봄’ (B, C, F, H, J, N, P 수록)	4
	<사계> 중 ‘여름 1~3악장’ (F 수록)	
	<사계> 중 ‘가을 1악장’ (F 수록)	
	<사계> 중 ‘겨울 2, 3 악장 (C, F 수록)	

모차르트	‘작은 밤의 음악’ (A, F 수록)	9
	‘교향곡 40번 제 1악장’ (B 수록)	
	‘초보자를 위한 작은 피아노 소나타’ <1~3악장>(C 수록)	
	‘세레나데 K. 525’ (C, J 수록)	
	‘피아노 소나타 K.545 1악장’ (D 수록)	
	<요술피리> 중 ‘아름다운 방울소리’ (J, K, M 수록)	
	<요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G, H, I, L, O 수록)	
	‘모차르트의 자장가’ (O 수록)	
	‘터키 행진곡’ (L 수록)	
비제	<피가로의 결혼>중 ‘더 이상 날지 못하게’ (N 수록)	1
브람스	‘하바네라’ (A 수록)	2
	‘축전 서곡’ (B 수록)	
바흐	‘헝가리무곡 제5번’ (C, M 수록)	4
	‘2성 인벤션 제1번 (B, C 수록)	
	‘푸가 사단조’ (D, O 수록)	
	‘토카타 와 푸가 사단조’ (G, P 수록)	
하이든	<평균 피아노 곡집> 제 1권 제1번중 ‘푸가’ (J 수록)	4
	‘현악 4중주 종달새 1악장 (B 수록)	
	‘놀람교향곡’ (C, D 수록), 2악장(I 수록)	
	<황제> 4중주 1, 2악장 (E 수록)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O 수록)	1
푸치니	<호두까기 인형>중에서 ‘꽃의 왈츠’(B 수록), (H 수록)	2
	<투란도트>중에서 ‘아무도잠 못 이루고’(B, F 수록)	
베토벤	<라보엠> 중 ‘그대의 찬 손(D 수록)	4
	‘전원 교향곡’ <1~5악장>(C, H 수록)	
	‘운명교향곡’ 1악장 (C, D, J, K 수록)	
	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봄’ (G, H, M, P 수록)	
쇼팽	‘9번 합창’ 4악장 (J, L 수록)	2
	‘즉흥 환상곡’ (C, K, L 수록)	
헨델	‘빗방울 전주곡’ (E 수록)	2
	‘날 올게 하소서’ (C 수록)	
라벨	‘할렐루야’ (D, E 수록)	1
라벨	‘볼레로’ (C 수록)	1
바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C 수록)	1
거슈윈	‘랩소디인 블루’ (C 수록)	2
	‘리듬을 타고’(E 수록)	
드보르자크	‘신세계교향곡’ 9번 중 4악장 (H 수록)	1
스메타나	나의 조국 제2번 ‘몰다우’ (H 수록)	1
멘델스존	<봄의 노래> ‘무언가’ 중 OP.62-6(I 수록)	2
	‘바이올린 협주곡’ OP.64(M 수록)	
로저스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 송’ (J, K, N 수록)	1
드뷔시	‘달빛’ (K 수록)	1
쾨베르크	‘레미제라블의 구름속의 궁전’ (K 수록)	1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M 수록)	1

파헬렐	‘카논’ (O 수록)	1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A, B, I, J, K, L, M, N, O, P 수록)	1
베르디	‘히브리노예들의 합창’ (A 수록)	1
<b>총 28 명</b>		<b>59곡</b>

## 2. 한국 음악 감상곡 작곡가, 채보자별 분류

한국 음악의 작곡자는 15명이고, 채보자는 1명으로 총 16명이다. 16명의 작곡자 채보자의 곡은 총 19 곡이다. 김영동과, 신혜영(채보자), 박범훈이 2곡씩 수록되어 있다. 김영동의 ‘물고기의 노래’ 는 A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산행’ 은 D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신혜영(채보자)의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A, B, G, H, J, K, L, N, P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으며, 가곡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는 A, C, D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작곡자들의 작품은 한곡씩 수록되어있다. 양방언의 ‘프론티어’ 는 A, F, K, N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황이종의 ‘만선’ 은 A 교과서에 이성천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입문’ 은 B, E, L, M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강상구의 ‘어린왕자’ 는 D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경섭의 ‘방향 1악장’ 은 F 교과서에, 황병기의 ‘침향무’ 는 I 교과서에 , 원일 의 ‘대바람 소리’ 는 K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박종기의 대금산조 중 ‘중모리 악장’ 과 조광재의 ‘산도깨비’ 는 K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다. 윤이상의 ‘간주곡 A’ L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고, 이병욱의 ‘가시버시 사랑’ 은 P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안익태 의 ‘한국 환상곡’ 은 P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다.

<표 11> 한국 음악 작곡가, 채보자 별 감상곡 분류

작곡자, 채보자	곡명	합계
김영동	‘물고기의 노래’ (A 수록)	2
	‘산행’ (D 수록)	
양방언	‘프론티어’ (A, F, K, N 수록)	1
황의중	‘만선’ (A 수록)	1
이성천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B, E, L, M 수록)	1
신혜영(채보자)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A, B, G, H, J, K, L, N, P 수록)	2
	가곡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A, C, D 수록)	
강상구	‘어린왕자’ (D 수록)	1
박범훈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E, J, O 수록)	2
	‘신모듬’ (M 수록)	
이경섭	‘방향 1악장’ (F 수록)	1
황병기	‘침향무’ (I 수록)	1
원일	‘신밧놀이’ (I, O 수록)	1
이상규	‘대바람 소리’ (K 수록)	1
박종기	대금산조 중 ‘중모리 악장’ (K 수록)	1
조광재	‘산도깨비’ (K 수록)	1
윤이상	‘간주곡 A’ (L 수록)	1
이병욱	‘가시버시 사랑’ (P 수록)	1
안익태	‘한국 환상곡’ (P 수록)	1
<b>총 16 명</b>		<b>19곡</b>

### 3.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 나라별로 분류

개정 7차 16종 교과서에는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다. 아시아 민요를 나라별로 나누어 보았다. 총 12국가의 민요가 수록되어있는데, 중국 민요는 ‘모리화’, ‘물에 비친 하늘’, ‘초원정가’, ‘극음악 경극’ 4곡으로 가장 많이 수록 되어있다. 일본 민요는 ‘코키리 코절’, ‘벚꽃’, ‘극음악 가부키’ 3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요는 ‘살롬’과 ‘돌아가리’ 2곡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터키, 몽골, 필리핀,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민요는 1곡만 수록되어있다. 터키민요는 ‘위스퀴다라’, 몽골민요 ‘몽골의 밤 노래’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이란민요 ‘소맥

꽃’, 인도 민요 ‘달아 달아’,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 싱가포르 민요 ‘찬말리 찬’, 대만 민요는 ‘아리산의 아가씨’ 가 수록 되어있다.

<표 12>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 나라별로 분류

나라	곡명	합계
터키 민요	‘위스퀴다라’ (A, H, I 수록)	1
중국 민요	‘모리화’ (A 수록)	4
	‘물에 비친 하늘’ (B 수록)	
	‘초원정가’ (J 수록)	
	‘극음악 ‘경극’ (P 수록)	
몽골 민요	‘몽고의 밤 노래’ (A, B, H, I 수록)	1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 (A, H, I 수록)	1
베트남 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A, H, I 수록)	2
	‘가을 축제’ (B 수록)	
일본 민요	‘코키리 코절’ (B 수록)	3
	‘벚꽃’ (O 수록)	
	‘극음악 ‘가부키’ (P 수록)	
이스라엘 민요	‘샬롬’ (H 수록)	2
	‘돌아가리’ (O 수록)	
이란 민요	‘소매꽃’ (H 수록)	1
인도 민요	‘달아 달아’ (H, I, O 수록)	1
인도네시아 민요	‘양거춤 추세’ (H 수록)	1
싱가포르 민요	‘찬말리 찬’ (I 수록)	1
대만 민요	‘아리산의 아가씨’ (I 수록)	1
<b>총 12 국가</b>		<b>18 곡</b>



## 4. 장르별 감상영역 분석

서양 음악 연주 형태별 감상곡을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었다. 성악곡은 37번 나왔고, 기악곡은 80번이 나왔다. 성악과 기악이 모두 수록 되어 있는 교과서는 없었고 'B, C, J, M' 교과서에 8개의 연주 형태가 수록되어있다.

### 1. 서양 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 가. 성악곡

성악곡은 가곡, 오페라(아리아), 합창곡, 뮤지컬, 오라토리오, 로 5개의 연주 형태로 나누어졌다.

오페라(아리아)가 17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으며, F 와 P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으며, A, D, G, 교과서에는 2개 수록되어있고, 나머지 교과서에는 한 개씩 수록되어있다. 가곡은 8번 나왔으며 A, B, C, D, F, H, K, P 교과서에 1 번 수록되어있다. 뮤지컬은 7번이 나왔으며, K 교과서에 2개 수록되어있고, A, D, E, J, N 교과서에 1개씩 수록되어있다. 오라토리오는 3번이 나왔는데, D, E, J, 교과서에 한번 수록되어있다. 합창곡은 2번 수록 되어있고, J, L 교과서에 1 곡 수록되어있다.

#### 나. 기악곡

기악곡은 관현악곡, 피아노곡, 바이올린곡, 교향곡, 현악합주협주곡, 현악4 중 주, 오르간곡, 바순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발레음악, 관현악 협주곡, 오케스트라, 12개의 연주형태로 나누어진다. 12개의 연주 형태 중에서 피아노가 26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 되어있다. 그 중 C 교과서에 6번, O교과서에 5번 K 교과

서에 3번, B, D, J, L, M 교과서에 2번, E, I, 교과서에는 1번 수록되었으며, 나머지 A, F, G, H, N, P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있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향곡이 12번 나와 있는데, C 교과서에 3번, D, J 교과서에 2번, A, B, H, K, L 교과서에 한번 수록되어있고, 나머지 E, F, G, I, M, N, O, P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있지 않다. 현악합주 협주곡과 오케스트라는 모두 11번 나왔다. 먼저 현악합주는 F 교과서에 4번 , C 교과서에 2번, B, H, N, P 교과서에 1번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A, D, E, G, I, K, L, M, O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있지 않다. 오케스트라는 A, B, C, I, J, K, L, M, N, O, P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관현악곡은 7번 나왔으며 B 교과서에 2번 수록되어있으며 A, C, F, H, M 교과서에는 1번 수록되어 있다. D, E, G, H, N, O, P 교과서에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바이올린곡과 현악 4중주곡은 4번 수록되어있다. 바이올린곡은 G, H, M, P 교과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현악 4중주는 A, B, E, F 교과서 1번 수록되어있으며,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되어있지 않다. 오르간곡은 2번 수록되어있으며, G 와 P 교과서에만 수록되어있다. 바순 협주곡은 H 교과서에, 바이올린 협주곡과 발레 음악은 M 교과서에, 관현악 협주곡은 C 교과서에 만 수록 되어있다.

<표 13> 서양 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악곡의 종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계
성악	가곡	1	1	1	1		1		1			1					1	8
	오페라 (아리아)	2	1	1	2	1		2	1	1	1	1	1	1	1			17
	합창곡										1		1					2
	뮤지컬	1			1	1					1	2			1			7
	오라토리오				1	1					1							3
	계	4	2	2	5	3	1	2	2	1	4	4	2	1	2	1	1	37
기악	관현악곡	1	2	1			1		1					1				7
	피아노곡		2	6	2	1				1	2	3	2	2		5		26
	바이올린곡							1	1					1			1	4
	교향곡	1	1	3	2				1		2	1	1					12
	현악합주 협주곡		1	2			4		1		1				1		1	11
	현악4중주	1	1			1	1											4
	오르간 곡							1									1	2
	바순 협주곡								1									1
	바이올린 협주곡													1				1
	발레음악													1				1
	관현악 협주곡			1														1
	오케스트라	1	1	1						1	1	1	1	1	1	1	1	11
	계	4	8	14	4	2	6	2	5	2	6	5	4	6	2	6	4	81
	계		8	10	16	9	5	7	4	7	3	10	9	6	7	4	7	5

## 2. 한국 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 가. 한국 전통 음악

국악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조선 시대 말엽 고종 때 장악원에서부터 라고 한다. 민족과 함께 긴 역사 속에 생성되어 온 우리의 음악은 시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었으니, 정악, 당악, 향악, 속악 등의 명칭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4)한국 음악은 전통 음악과, 창작 국악 음악, 현대 국악 음악으로 나누었다. 한국전통음악을 정악과, 민속악으

14) 서한범,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서울 : 1995)

로 나누었고, 창작 국악음악과 현대 국악음악을 을 정악과, 기악으로 나누었다. 정악은 연례악, 제례악, 군악, 가곡, 가사, 시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서에는 연례악과, 제례악, 가곡, 시조 만 수록되어있다.

정악과 민속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한국 전통 음악 중 정악과 민속악 분류

정악	연례악	옛날 궁중 음악이나 잔치 때에 연주하는 음악으로, 영산회상, 보허자 등이 있다. 15)
	제례악	종묘·문묘에서 연주되는 음악으로 기악과 노래와 무용이 다 포함 된다. 16)
민속악	가곡	시조시를 실내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5장 형식의 노래이다.
	시조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노래하는 음악을 말한다. 17)
	고려가요	고려 시대의 노래를 총칭하는 말이다.
	판소리	광대 한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극음악형식으로,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 발림을 곁들이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산조	민속악곡의 하나. 주로 가야금, 거문고 등으로 독주하는 남도 지방의 악곡이다.
	시나위	여러 가지 악기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하는 즉흥적인 민속 기악 합주곡이다.
	단가	흔히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노래이다.
창극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통음악과 창작국악음악, 현대국악음악을 장르별로 분석하였는데, 전통음악이 81번 , 창작음악이 27번, 현대음악이 3번 나왔다. 전통음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었는데, 수록 수는 거의 비슷하였다.

15) 김민정,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9종의 비교분석 연구 - 감상영역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2

16) 권덕원·백일형·이성찬·황현정,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서울, 1994)

17) 권덕원·백일형·이성찬·황현정,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서울, 1994)

## (1) 정악

정악은 모두 42번이 수록되어 있고 계중 연례악은 18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다. 'O' 교과서에 3번, 'C, E, K, N' 교과서에는 2번, 'A, D, G, H, I, M, P' 교과서에는 한 번,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있지 않다. 시조는 11 번 수록 되어있다. 'A, B, D, F, G, H, J, K, L, N, P' 교과서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례악은 'G, I, J, K, L, N, O, P' 교과서에 수록되어있고,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있지 않다. 가곡은 'A, C, D, J' 교과서에만 수록 되어있다. 그리고 고려가요 '공무도화가' 는 'M' 교과서에만 수록 되어있다.

## (2) 민속악

민속악 은 모두 39번이 수록되어있고 계 중 산조가 15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다. 'G' 교과서에 4번, 'F' 교과서에는 2번, 'A, B, C, H, L, M, N, O, P' 교과서에 한번 수록 되어있다. 판소리는 12번 나왔으며, 'M, N' 교과서에 2번, B, D, E, H, I, J, O, P' 교과서에 한번 수록 되어있다. 시나위는 'D, H, J, N, O' 교과서에 한번, 나머지 교과서에는 수록 되어 있지 않다. 단가와, 창가는 3번 수록되어있으며, 단가는 'D, G, J' 교과서에, 창극은 'D, E, J' 교과서만 한번 수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놀이는 양주 별산대놀이 로 'H' 교과서에만 한번 수록 되어있다.

## 나. 창작국악음악

창작 국악 음악은 27번이 수록되어있고, 성악과 기악으로 나누었는데, 성악은 3번, 기악은 24번으로 기악곡이 대부분 수록수를 차지 고 있었다. 성악은 장르가 가요뿐이었으며, 'A, K, P' 교과서에만 한번 수록 되어있다.

기악은 관현악곡, 현악독주곡, 기악독주곡, 오케스트라 + 관현악곡으로 4가지 장르로 나누어졌다. 관현악곡이 15번 수록 되어있다. ‘E, I, M, P’ 교과서에 2번, ‘A, B, F, H, I, L, N’ 교과서에 한번 수록 되어 있다. 오케스트라 + 관현악곡은 양방언의 ‘프론티어’가 4번 수록 되어있다. ‘A, F, K, N’ 교과서에 한번 수록 되어있다. 현악독주는 3번 수록되어있으며, ‘D’ 교과서에 2번, ‘I’ 교과서에 한번 수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악독주는 ‘K’ 교과서에 2번 수록 되어있다.

## 다. 현대국악음악

현대 국악 음악은 성악곡 한 곡이 ‘P’교과서에 한번, 기악곡은 하나는 피아노곡으로 ‘L’ 교과서에, 나머지 하나는 해금 협주곡으로 ‘B’ 교과서에 한번 수록되어있다.

<표 15> 한국 음악 감상곡 장르별 분석

장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계	
한국 전통 음악	정 악	연례악	1		2	1	2		1	1	1		2		1	2	3	1	18
		제례악							1		1	1	1	1		1	1	1	8
		가곡	1		1	1						1							4
		시조	1	1		1		1	1	1		1	1	1		1		1	11
		고려 가요													1				1
	계	3	1	3	3	2	1	3	2	2	3	4	2	2	4	4	3		42
	민 속 악	판소리		1		1	1			1	1	1			2	2	1	1	12
		산조	1	1	1			2	4	1				1	1	1	1	1	15
		시나위				1				1		1				1	1		5
		단가				1			1			1							3
창극					1	1					1							3	
놀이										1								1	
계	1	1	1	4	2	2	5	4	1	4			1	3	4	3	2	39	
창작 국악 음악	성 악	가요	1									1					1	3	
	기 악	관현악	1	1			2	1		1	1	2		1	2	1	2		15
		현악 독주				2					1								3
		기악 독주											2						2
		오케스트라 + 관현악	1					1					1			1			4
계	3	1		2	2	2		1	2	2	4	1	2	2	2	1	27		
현대 국악 음악	성 악	3,4 부 합창															1	1	
	기 악	피아노											1					1	
		해금 협주곡		1															1
	계		1										1				1	3	
합계																		111	

### 3.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 악곡의 장르별 분석

세계(아시아)음악 감상곡 은 16종 교과서에서 'A, B, G, H, I, K, O, P' 8종 교과서에만 수록 되어있다.

## 가. 성악곡

대부분 성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중에서도 민요만 수록되어있다. 'H' 교과서에는 터키 민요, 몽골민요, 필리핀 민요, 베트남 민요, 이스라엘 민요, 이란민요, 인도 민요, 인도네시아 민요, 8개의 나라 민요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다. 그 다음으로는 'I' 교과서에 터키 민요, 몽골 민요, 베트남 민요, 인도 민요, 싱가포르 민요, 대만 민요, 6개 나라 민요가 수록되어있다. 'A'교과서에는 터키 민요, 중국 민요, 몽골 민요, 필리핀 민요, 베트남 민요 5개 나라의 민요가 수록되어있다. 'O' 교과서에는 필리핀 민요, 인도 민요, 이스라엘 민요, 일본 민요가 4개의 나라 민요가 수록되어있고, 'B' 교과서에는 몽골 민요, 베트남 민요, 일본 민요, 중국 민요 4개의 나라 민요가 수록 되어있다. 'K' 교과서에는 중국 민요 1개의 수록되어있다.

## 나. 기악곡과 극음악

기악곡은 '가믈란 합주' 하나만 수록 되어있다. G, I, K, O, 4종 교과서에만 수록 되어있다. 극음악은 중국의 '경극' 과 일본의 '가부키' 가 수록되어있다. 두 극음악은 'P'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표 16>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감상곡 장르별 분석

악곡의 종류		A	B	G	H	I	K	O	P	계
성악	민요	5	4		8	6	1	4		28
기악	합주			1		1	1	1		4
극음악	극음악								2	2
계		5	4	1	8	6	2	5	2	34



## IV. 결 론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감상 영역을 분석 하였다. 먼저 음악의 교육 과정을 교수 요목기 부터 7차 까지 살펴보고, 2007 개정 교육 과정의 중점 방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상에 들어가기 전에 감상 방법, 감상의 필요성, 그리고 연주회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 등을 알아보았다. 음악을 감상 한다고 해서, 무심코 듣는 것은 옳지 않다.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음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아야 하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학생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감상곡 을 배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있는 감상곡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의 수록곡 현황의 비중은 비슷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16종 감상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종 교과서 별로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의 악곡 수 를 분석한 결과는 서양과, 한국 음악의 비중은 비슷하였고,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는 16종에서 8종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금성출판사(C)는 서양 음악이 18곡, 한국 음악이 3곡, 세계 음악은 수록 되어있지 않았으며, 눈에 띄게 서양음악 비중 이 월등히 높았다. 성안당(I)은 감상 수록곡 자체가 적었으며, 서양음악은 3곡, 국악 음악은 5곡이 수록되어있다. 오히려, 7곡 수록된 아시아 민요에 중점을 두었다. 교문사(A)와 두산(D)은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비중이 비슷하다. 태림(N), 태성(O), 현대(P)는 서양 음악보다는 한국 음악에 비중을 더 두었다.

둘째, 나라별 로 감상 영역을 분석하였다. 서양 음악, 한국 음악,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 의 감상곡 수록 현황을 출판사별로 분석하였다.

셋째, 작곡가 별로 서양 음악, 한국 음악, 한국 이외 아시아 음악의 감상영역을 분석하였다.

넷째, 장르 별 감상곡 분석 결과, 서양 음악은 성악보다도, 기악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음악 분석 결과, 전통 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의 비중이 비슷하였고, 창작 음악은 27곡 중 3곡만 성악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악곡 이었다. 현대 음악은 기악곡이 2개, 성악곡이 1개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 음악은 기악곡들이 많이 수록 되어있다.

한국 이외 아시아 민요는 적게 수록 된다하더라도, 16종 교과서 전체에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의 수록곡, 장르별, 작곡자별, 장르별, 등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교사는 모든 교과서를 살펴 본 후,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이 수록 되어 있는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 서양 음악에 익숙한 우리는 아무래도 서양음악이 많이 수록된 교과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양 음악도 중요한 만큼 한국 음악도 중요성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한국 음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연주 방법, 감상 방법, 등을 잘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 감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힘써야 한다. 음악실에 방음벽 을 설치하고, 음악 감상을 위한 음반들과 감상 보조 자료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음악 수업의 수준이 더욱 높아 질 것이며, 아이들도 음악 감상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민선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태림.
2. 강선영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두산동아.
3. 강세연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주)지학사.
4. 고동현(2004).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 감상영역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계명대학교.
5. 『교육과학 기술부』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
6. 김경태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주)미래엔 컬러그룹.
7. 김동수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도서출판 태성.
8. 김미숙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더 텍스트.
9. 김민정(200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9종의 비교분석 연구 - 감상영역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 국민대학교.
10. 김세중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천재교육.
11. 김은하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천재교육.
12. 김일영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주)교학사.
13. 김정숙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경기: 법문사.
14. 김한순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금성.
15. 곽은외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현대음악.
16. 권덕원 외 3명(1994).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17. 권덕원 외 3명(2005).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도: 교육과학사.
18. 박은정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경기: 성안당.
19. 서한범(1995).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20. 선영주(2010).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감상영역 분석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성신여자 대학교.

21. 오명태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세광출판사.
22. 전낙표 외 2명(2010). 중학교 1학년 경기도: 교문사.
23. 조성진(1999). 『서양 고전음악 감상법』 서울: 대문사.
24. 주광식 외 3명(2010). 중학교 1학년. 서울: (주)박영사.
25. 추화정(2003).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26. H. M. Miller(1994). 『음악감상을 위하여』 서울: 태림출판사.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8809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유지혜		한문: 柳智慧	영문: Ryu Ji Hye	
주 소	광주 광역시 북구 각화동 금호 아파트 10동 1203호				
연락처	E-MAIL: dnjihye@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감상 영역 중심으로- 영어: An analysis and study of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Focusing on the do main of Music appreci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11 년      1 월      5 일

저작자:              유 지 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